



헌혈로 전하는 따뜻한 봉사 정신

고양도시관리공사 고객지원팀 유영진 주임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고양어울림누리 체육센터에는 헌혈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이가 있다.
바로 고양도시관리공사 고객지원팀 유영진 주임이다. 그는 23년 동안 300회가 넘는 헌혈을 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헌혈증을 전하고 있다.

글 서충식 사진 김진건



66

기증한 헌혈증이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국민 한 사람으로서 나라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뿌듯해요

99

헌혈로 꽃피우는 사랑

유영진 주임은 1996년 대학교 1학년 시절 우연히 들른 헌혈 버스에서 처음으로 헌혈을 했다. 군대를 다녀온 뒤 정기적인 헌혈을 다짐했고 지금까지 그 약속을 이어오고 있다. 사실 건강이 좋지 않았던 어머니가 가장 큰 이유였다. 혹시나 병원에 입원하시면 수술을 받게 될 때 사용되는 혈액을 헌혈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펜싱 선수 출신의 건강한 몸을 활용해 헌혈증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에 내린 결정이었다.

이후 꾸준한 헌혈로 봉사의 기쁨과 행복을 알게 된 유영진 주임은 장기적인 헌혈을 위해 2달마다 할 수 있는 전혈에서 2주마다 받을 수 있는 혈장으로 헌혈 방식을 변경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총 302회(2019년 8월 29일 기준)의 헌혈을 했고, 300회 헌혈한 자에게 주어지는 최고명예대상 포장증을 올해 7월 22일에 수상했다. 또한 본인이 23년간 모은 헌혈증을 백혈병소아암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기증하며 나눔의 기쁨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2012년 100장을 시작으로 2015년 110장, 2019년 100장을 기증하며 총 310장의 헌혈증을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전했어요. 2015년 기증 때 좋은 일에 보태라고 헌혈증 20장을 선뜻 주신 일산헌혈센터 과장님에게 여전히 감사해요. 기증할 때마다 이런 행복한 일을 할 수 있는 건강한 제 몸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한 것인가를 느껴요. 헌혈증 기부와 함께 3년 간격으로 아들이 커가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게 된 점도 뜻깊고요.”



- 1 고양도시관리공사 고객지원팀 유영진 주임
- 2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헌혈증 기증(2012년)
- 3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헌혈증 기증(2015년)
- 4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헌혈증 기증(2019년)
- 5 적십자헌혈유공장 최고명예대상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의 아름다운 봉사

유영진 주임의 헌혈 사랑은 가족력이었을까? 5남 1녀 중 막내인 그와 띠동갑인 둘째 형 유영희 씨 역시 헌혈 200회를 앞두고 있다. 둘째 형도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본인과 함께 헌혈을 계속할 것이라는 말과 함께 “형제가 헌혈 500회를 하게 되면 가문의 영광일 것 같다”라며 웃음 지어 이야기했다.

더불어 헌혈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여전히 본인이 건강하다는 증거여서 항상 뿌듯함을 느끼고, 헌혈증 기증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큰 기쁨으로 다가온다고 한다. 또한 “헌혈은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봉사라며, 많은 분께서 관심을 두고 동참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헌혈을 꾸준하게 이어가고 싶어요. 69세까지 헌혈을 할 수 있는데 그때까지 한다면 500회 이상은 하지 않을까요? 조금 더 욕심내면 700회까지도 가능할 것 같고요. 제가 조금이라도 더 헌혈을 해서 헌혈증이 필요한 많은 사람에게 전해져 귀하게 쓰였으면 좋겠어요.”